

# ‘한국 바이올린 대모’ 김남윤 별세

줄리어드 음악원 졸업...티보바가 국제 콩쿠르 우승 세계적 연주자로 백주영·임지영·양인모 등 40년 후학 양성...호남예술제와도 인연

“예술가들은 자유로워야해요. 시스템에 얽매이면 안됩니다. 무대에 서는 이들은 자기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연주자는 본인의 노력과 함께 선생님, 그리고 부모까지 삼박자가 맞아야해요. 영재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2016년 인터뷰차 만난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은 당시 한국예술영재원에서 ‘예술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했다. 또 “바이올린 이외의 다른 삶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바이올린계의 대모’ 김남윤(74)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1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수많은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를 키워낸 교육자로 이름을 알린 그는 한국 클래식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이었다.

1977년 28살의 나이에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로 취임하며 교육자로 첫발을 댄 그는 서울대를 거쳐 199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개원과 함께 창설 멤버로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40여 년간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그는 투병 중에도 지난 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한국예술영재원에서 학

생들을 가르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서울예고, 줄리어드 음악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1974년 세계적인 권위의 스위스 티보바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인 연주자로 입지를 다진 뒤 귀국, 연주와 교육을 병행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백주영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이경선·유시연·양고은 등 중견 교수들부터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지영,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자 양인모, 클라라 주미강, 장유진 등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성과를 거둔 젊은 스타 연주자들까지 모두 그에게 레슨을 받았다.

2001년 한국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은 그는 하노버·파가니니·차이콥스키 콩쿠르 등 유명 국제 콩쿠르 심사도 도맡았다. 또 난파음악상, 한국음악평론가상, 금호음악스승상, 대한민국예술원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김남윤은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와도 인연이 있다.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광주서중·광주제일고 출신으로 초대 광주은행장을 지낸 아버지를 따라 어린시절 광주에 머물렀던 그는 서석초등학교 때 호남예술제에 참가했고 그 인연으로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지난 1985년 호남예술제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호남예술제 출신 예술인 특별 공연’ 무대에 서기도 했다.

한편 장례는 한예총 음악관장으로 열린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5일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임청나지

## 용서는 없었다... 그래서 더 시원하고 강렬했다

‘더 글로리’ 파트2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3위...26개국서 정상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을 테지만” (극 중 송혜교 대사)

10일 베일을 벗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가 약속했던 시원하고 강렬한 복수를 완성했다.

‘더 글로리’는 파트2 공개 이후 하루 만에 글로벌 순위 3위에 올랐다. 12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파트’에 따르면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 3위에 올랐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등 26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이다, 마라 맛이 파트2에 집중되어있다”는 김은숙 작가의 언급대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파트2는 훨씬 속도감 있고 긴장감 높게 가해자들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잔혹한 학교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은 문동은(송혜교 분)은 피해자로서 빼앗겼던 영광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용서 대신 복수를 선택한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김은숙의 탄탄한 필력과 배우들의 열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밤새워서 결말까지 몰아봤다”는 평이 쏟아진다.

송혜교는 특유의 절제된 연기로 극의 중심을 이끌었고, 배우 임지연은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문동은 앞에서 다급해진 박연진의 광기 어린 모습을 표현해내며 보는 재미를 높였다.

내용이 탄탄한 조건 배우들의 연기도 작품에 힘을 실었다.

김은숙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윤소희(이소이)의 죽음, 손명오(김건우)의 실종, 점집의 정체, 집주인 할머니(손숙)와 인연 등을 앞서 보인 디테일한 단서와 연결 지으며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작품은 피해자들의 연대를 더 비중 있게 담아내며 따뜻한 감성을 전하기도 했다.

“도와 달라”는 외침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통을 인내해왔던 문동은은 든든한 조력자 강현남과 주여정(이도현)을 만나 인생에서 놓치고 살아왔던 낭만, 여유, 우정, 사랑 등을 배운다.

학교 폭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담은 ‘더 글로리’는 외신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파트2를 보면 문동은이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은 정의를 스스로 쟁취해낼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라며 ‘더 글로리’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도록 겪는 정신적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 “고 평했다. /연합뉴스

## ‘더 글로리’ PD 학폭 인정...“마음 속 깊이 용서 구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안길호 PD가 과거 일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안 PD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안 PD는 19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 거리가 됐다든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직접 법거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안 PD에게 과거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당시 고3

이던 안 PD가 중2였던 자신의 동급생인 여학생과 교제했으며, 그 여학생을 동급생들이 놀리자 안 PD가 자신과 다른 친구를 불러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장소에는 안 PD를 포함해 열댓 명이 있었고, 폭행이 2시간가량 이어졌다고 했다.

안 PD는 이런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를 무리 지어 때린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안 PD의 입장이 바뀐 것과 관련해 “당시 친구들을 수소문해 학창 시절 시간을 수없이 살기했다”며 “본인 기억이 희미한 데다 사건을 왜곡해 인식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ACC전문인 콘텐츠 발굴 ‘맛보기 과정’ 23일까지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은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과 기획 분야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ACC전문인 콘텐츠 발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융복합 가상 콘텐츠 창작과 기획에 특화된 전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교육의 특징은 콘텐츠 개발, 시연 부분 교육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일명 ‘맛보기 과정’.

오는 22일과 23일 국제회의실에서 ‘창 융복합 콘텐츠 맛보기’, ‘가상·실감 콘텐츠 맛보기’ 두 분야로 진행되는 ‘맛보기 과정’은 오는 23일까지 ACC누리집에서 선착순 마감한다. 총 100명이며 1일 50명씩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2일 진행되는 프로그램 주제는 ‘ACC 융복합 전시’ ‘지구의 시간’으로 살펴보는 뉴미디어 콘텐츠의 현재와 미래, 정우진 자이언트스텝 이사가 강사로 나서 전체적인 콘텐츠 발굴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23일에는 이혜원 기어이 스튜디오 대표가 ‘기술이 어울리는 이야기: 가상과 현실이 이어지며 변화한 것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조태일문학상 다섯번째 주인공 찾는다

5월 1일~6월 30일 공모

곡성 출신 죽형(竹形) 조태일(1941~1999·사진)은 어두운 시대에 맞서며 울곧은 목소리를 냈던 남도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를 발표해 옥고를 치렀지만 그의 저항 정신은 이후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인한 시 정신 이면에 자연과 하나되는 순수한 감성은 그의 작품이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태일 시인을 기리기 위한 조태일문학상(상금 2000만원)이 다섯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와 곡성군은 제5회 조태일문학상을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태일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공모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2년 이내(2021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정수는 광주전남작가회의로 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8월 말 곡성군 홈페이지에 할 예정이다.

한편 조태일 시인은 1964년 경향신문에 ‘아침선박’으로 등단했으며 1969

년 시 전문지 ‘시인’을 창간해 김지하를 비롯해 양성우, 김준태 시인 등을 배출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부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을 역임했으며 광주대 문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대표작으로 ‘국토’, ‘아침 선박’이 있으며 1995년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로 제10회 한해문학상을 수상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guktpoet@naver.com)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